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영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태로 일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 한국 YWCA

2016년 11월호  
November  
Vol.535

**이달의 생각**  
새로운 여성주의, 새로운 리더십

**기획**  
온라인 여성목력

**이달의 이슈**  
지진과 핵발전소

**이달의 현장①**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 YWCA 행정질서 세운 27대 회장 김애마



한국 유아교육 선각자인 김애마(1903~1996)는 사립으로서 한국 최초로 이화여대에 사범대학을 설치하고, 교사 양성의 길을 개척했다. 대한YWCA연합회(지금 한국YWCA연합회) 제27~28대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인 첫 감리교 목사인 김기범 목사의 딸로 1926년 이화학당 유치원 사범과를 졸업하고 미국 내셔널교육대학에서 아동교육, 콜롬비아대학에서 대학행정을 공부한 뒤 이화여대에서 40여 년을 재직했다. 유치원, 초·중등 교사를 대학 수준에서 양성했으며 한국 최초의 특수교육과, 시청각교육과를 대학에 신설했다.

1946년 YWCA를 재건하던 무렵 YWCA에 온 김애마는 부회장이던 박마리아와 함께 사무행정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는데 주력했다. 서울 명동의 YWCA 옛 건물 인수 때 사무처리를 맡았다. 1950년부터 연합위원, 회계로 활동하다가 1954년 미국에서 돌아온 박에스터 고문총무의 동지가 되어 협동총무로 일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간사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다 일하던 때여서 낮에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저녁에 YWCA에 와서 사무정리를 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새벽 1, 2시가 되기 보통이었다. 겨울에는 불도 없는 마룻바닥이라서 몸이 추웠던 일이 많지 않는다.”

그는 YWCA 질서를 확립한 공로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을,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박에스터 고문총무는 “강력한 지도력, 좋은 판단력, 조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행정가이며 교육자”로 그를 평가했다.

## 2016. 11 한국YWCA



### 표지이야기

고리원자력본부 일대에서 동부지역 YWCA 회원 300명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차량 퍼레이드와 바람개비 평화행진을 벌였습니다. (사진제공 : 부산일보)

### 2016년 11월 한국YWCA 주요일정

- 11월 3일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1월 8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 11월 10일 한국YWCA 정책교육(중·서부지역)
- 11월 14일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 11월 25일 2016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 제52권 제9호 통권 535호

2016년 11월 1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04 **이달의 생각** 새로운 여성주의, 새로운 리더십 | 백혜진

05 **말씀 묵상** 시가서와 시간표 | 김진희

### 온라인 여성폭력

06 **기획①** ‘혐오를 넘어서’ 새로운 페미니즘 | 최형미

08 **기획②** 여성혐오에 맞선 ‘젊은’ 페미니스트 | 이민경

10 **기획③** 청소년 성착취 채팅앱 고발하다 | 안수경

14 **성평등** 그녀들은 왜 ‘검은 시위’를 했는가 | 김예리

16 **인터뷰** 탈핵운동가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편집실

18 **강연** 히로세 다카시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 그 위험을 말하다’ | 편집실

20 **이달의 이슈** 동부지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평화행진 | 윤영인

22 **이달의 현장①**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편집실

Y-틴이 만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 천유란

26 **이달의 현장②** 천안YWCA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김명숙

28 **이달의 현장③**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씽크머니 | 정석진

30 **원로에게 듣는다**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 편집실

32 **세계YWCA**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 편집실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벤허’ | 강도영

36 **연합회 소식**

39 **회원YWCA 소식**

49 **일정** 11월, 12월의 한국YWCA

## 새로운 여성주의, 새로운 리더십



백혜진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찬바람과 함께 우리 관심 밖으로 멀어졌지만, 올해 여름 뜨거운 날씨 못지않게 인터넷을 달궜던 이슈는 새로운 여성주의인 '메갈리아' 등장과 이에 관한 논란이었다.

메갈리아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노르웨이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나온 이갈리아의 합성어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정치, 사회 전반에서 끝없는 이슈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2016년 늦가을, 지난 무더위와 함께 지나가버린 낡은 이슈를 주머니 속에서 꺼내보는 이유는 94살 여성단체인 YWCA가 한국 사회 새로운 W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메갈리아가 한국 사회에서 누려왔던 남성기득권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강한 저항을 받고, 또 여성운동을 한다는 우리조차도 당황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법 때문인 듯하다.


이들은 여성들이 받아온 차별에 대해 이번엔 여성들이 똑같이 행동해서(거울에 반사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지칭) 지금까지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아보라고 얘기했다.

여태까지 한국YWCA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 점잖고

세련된 여성운동을 해왔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 중심의 '메갈리아' 그룹은 YWCA처럼 하나의 단체가 아닌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거칠어 때론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

100세를 앞둔 YWCA처럼 조직이 탄탄한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94년 전 YWCA가 이 땅에 뿌리내릴 때나 120여 년 전 세계YWCA가 처음 싹을 틔울 때도 어찌면 그 시대는 YWCA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100주년을 바라보며 52개 회원YWCA가 소속된 거대한 조직과 94세 나이에 안주하지 않고 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다. '94세의 청년' 상상만 해도 기운이 나고 입 꼬리가 올라간다. '94세의 청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시대흐름과 변화에 민감한 데서 오지 않을까.

2016년 여름엔 메갈리아가 등장했지만 2017년, 2018년 등장할 새로운 W에 깊은 관심과 넓은 이해부터 준비해야겠다. 94년 전통의 한국YWCA는 메갈리아 같은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너무 늦지 않게 알아가고, 공부할 때다. 

## 시가서와 시간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김진희 안산대학교 교목

인간이 태어나 성숙의 과정을 거치듯 믿음의 사람도 성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있는 율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권의 책을 지혜문학 또는 시가서(詩歌書)라고 부릅니다. 저는 시가서 다섯 권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배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율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20대의 처절한 투쟁이 담겨있습니다. 정치신학자 도로테 쾰레는 <고난>(2002)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전통적 신정론<sup>1)</sup>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통적 신정론을 비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쾰레의 신정론은 '사랑의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무한한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율기를 지나 시편에서는 3,40대의 생생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예고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상처, 절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각 시의 뒤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 감정의 노골적인 투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큰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신 앞에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요, 기도임을 배웁니다.

잠언서에는 5,60대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초아가의 욕구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것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에는 7,80대의 자신을 비우는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옳다고 믿으며 자신 안에 채워놓았던 지혜까지도 풀어버리는 노년의 허허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지혜서는 비움의 영성시대를 지나 아가서로 갑니다. 영적 성숙의 여정을 정화, 조명(깨달음의 단계), 합일의 단계로 일컫는다면 완덕에 이르는 길, 합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아가서는 신과 합일된 상태, 사랑이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를 이야기 해줍니다. 아가서 2장, 6장, 7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사랑의 최고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sup>1)</sup> 전통적 신정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의로움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고통과 악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함

# 진짜 여성주의는 무엇인가 다른 목소리, 다양한 길, 새로운 운동

최형미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 여성혐오,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다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메리 데일리(Mary Daly)는 자신의 수업에 남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변호사가 그의 수업에 들어 오려고 하자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남성으로서 기득권을 누려왔으니 허락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사람들은 그를 역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고, 결국 그는 학교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그의 지독한 여성인권 지지는 후대 여성들이 아무리 극단적으로 성평등을 주장해도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들은 맘껏 남성중심적인 사회를 비판했다. ‘모성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려는 가부장제 전략이다’ ‘가족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친밀함으로 숨긴 억압제도다’ ‘여성들을 섹슈얼리티로 창녀와 성녀로 위계화하지 마라’. 그들은 평등을 원했고 투사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1970년대를 ‘여성주의 황금기’라고 회고한다.

요즘 우리나라 담론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여성혐오’일 것이다. 몰카, 된장녀, 보슬아치, 강남역 살인사건, 소라넷 등은 우리 사회 여성혐오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성들은 침대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이 시대를 ‘여성해방의 전성기’라고 표현한다. 여성혐오는 언제나 있었지만 이제야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때문이다. 여성주의 서적은 인문학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되었다. 중년 남성들은

‘여직원들에게 이제는 예쁘다는 말도 함부로 못해’라고 불평을 한다. 여성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문화계와 예술계에서 성폭행과 추행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남성 작가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쓰레기같은 관행’을 성찰해 보겠다고 손들고 나서고 있다.

갑작스러운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담론의 등장 뒤에는 메리 데일리와 같이 급진적이고 지독한 여성운동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혐오에 대한 혐오(미러링)를 표방한 온라인 기반 페미니즘 ‘메갈리아’다. 그들이 생겨난 것은 불과 2, 3년 전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은 놀랄 만하다. 여성혐오를 똑같이 뒤집어서 남성혐오로 되받아치는 방식으로 여성혐오 실태를 폭로했다.

## 메갈리아와 함께 메갈리아를 넘어서

메갈리아 방식을 놓고는 뚜렷하게 대립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겠는가?’ ‘그것은 모방범죄에 불과하다’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인 관계에 놓았다.’ 그러나 메갈리아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메갈리아가 여성주의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인간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주의가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말이다. 또다시 1970년대 이후 서구 여성주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를 주제로 최형미 위원이 10월 27일 경기북부지역 YWCA 정책교육에서 강연하고 있다.

제2세대 페미니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다. 역사가 비로소 온전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제2세대 여성주의를 공격한 것은 단지 보수 마초 남성들만이 아니었다. 흑인 여성주의자들은 백인 여성주의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당신들은 권력만 탐하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우리들을 불러 함께 여성운동을 하자고 해놓고 우리들의 문제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성주의자들 간의 충돌로 이제 여성주의가 막을 내리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구 여성주의는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주의를 벗어나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차이의 여성주의’를 중요한 운동의 전략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차별 경험을 여성주의 지식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아시아 여성주의, 남미 여성주의, 이슬람 여성주의, 아프리카 여성주의, 성소수자 여성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존중받으며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메갈리아가 여성주의냐’라는 질문은 ‘진짜 여성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각각 그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 따라 다른 전략과 언어를 구사한다. 메갈리아의 급진성은 우리

사회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메갈리아가 모든 여성주의를 대표할 수는 없다. 마치 전투적이고 투사였던 제2세대 여성주의가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성주의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다양한 방식의 여성주의 시각이 필요할 때다.

## YWCA는 어떻게 여성운동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YWCA는 어떻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만들어 여성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흑인 여성들에게 흑인 정체성은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YWCA 여성운동의 기독교인 정체성은 아마도 다른 전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YWCA가 지속해 온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YWCA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에큐메니칼이란 세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실천한다.

에큐메니칼 철학은 에코페미니즘 철학과 놀랍게도 맞닿아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적 세계관을 기저에 두고 있다. 강자가 힘으로 지배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돼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나만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살려내어 함께 공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2세대 페미니즘과 다르다. 자신의 권리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긴다. 타자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세계관을 갖는다. 이것은 YWCA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려고 했던 다양한 어머니 운동들을 생각나게 한다. 한국 여성운동 안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도록 물고를 트는 자리에 이미 YWCA는 앞장서고 있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어였다 여성혐오에 맞선 '젊은' 페미니스트

이민경 여성주의 정보생산조합 페미미디어작가<sup>1)</sup>

여성혐오 논쟁이 뜨겁다는 말은 더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평범한 문장이 되었다. 여성혐오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여성혐오가 생겨난 시점이 대체 언제인 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메갈리아, 일베의 등장으로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나 사실 답은 '모르긴 해도 아마도 처음부터'다. 여성혐오의 역사가 최근 몇 년의 일로는 설명될 수 없이 유구하다는 이야기다.

여성혐오를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내게 여성혐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틀을 벗어난 여성에게 느끼는 거북한 감정부터, 틀 안에 얽매지 않고 존재하는 여성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찬사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틀 안에 가두는 강력한 기제다. 때로는 거북함과 멸시로, 때로는 숭배와 찬사로. 여성의 삶은 저마다 다르지만 주어진 틀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명령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점으로 묶인다.

그런데 이 한 점이 문자 그대로 단 한 개의 점임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는 순간을 겪으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긴 지는 제법 오래 되었다. 이것이 단지 나 하나만 겪는 예외가 아니며 사회문제라고 부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지는 그보다 조금 더 뒤였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서로 다른 차별

의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유사하고, 너무 빈번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가 겪는 부당함의 닮은 점을 열심히 찾았다.

## 도망도 쳤고, 대응도 해봤으나

그러나 잘못 짚었다. 유사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없었다. 어쩐지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도 너무 비슷한 경험을 해왔다. 이를 겨우 깨달은 시점은 온라인 상에서 여성혐오가 기승을 부릴 때였다. 여태껏 실생활에서 마주했던 그 스텔한 차별의 경험이 부당한 감각을 또렷이 남기고도 번번이 얼토당토 않은 변명으로 빠져나가 버리던 것과는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여성이라는 한 점으로 묶여버린 우리 중 누구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주어진 틀에 아무리 얽매지 않아도 있었대도, 우리가 서로 여성이라는 점 외에 달리 비슷한 데가 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낯것의 혐오를 들이붓는 이는 그런 것 따위는 하나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작심한 그가 묻는 것은 단 하나다. 대상의 성별이 여성인가?

우리가 머리 위로 아무렇게나 쏟아지는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단 한 가지, 열심히 살기도 몸가짐을 조심하기도 아닌, 그저 여성이 아니기. 어떤 삶을 살아왔든 최후의 순간에 결국 우리는 여성으로만 보인다. 지나놓고 보니 이걸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는 규칙도 아니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뿐이었

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럼에도 끊임 없이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을 잔뜩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함을 잔뜩 안아온 것이다.

그래서 도망치기를 선택했다. 한때는 대응해 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는 거의 없어 보였고, 간혹 보이더라도 그 즉시 공격당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입 밖으로 냈다가 공격 받는 순간에, 입 여는 이는 없었다.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 없었거나, 지켜보고도 나처럼 입 열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거나. 어느 편이 진실이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온라인 세계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당최 알 수 없었다.

그저 내가 입을 열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을 꺼내는 순간 똑같이 공격당하리라는 사실만 자명했다. 지는 게임이었다. 당장 대응하고 싶던 처음의 마음을, 그 부당함을 가라앉히는 편이 쉬웠다. 그렇게 입을 닫고서 이유 없이 쏟아지는 혐오를 맞으면 맞을수록,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온라인 상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했으며,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 다른 목소리 덕분에 '닫았던' 입을 열다

종래에는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가 내 것인 양, 나는 스스로를 혐오하고 있었다. 피로해졌다. 더 이상 이 혐오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다. 뉴스 기사를 찾아 읽어도 댓글 창은 되도록 빠르게 넘겼다. 익숙한 골목길을 후다닥 달려 나오듯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빠져 나오기를 반복했다. 그렇다고 상쾌해지지 않는 않았다. 오히려 비참했다. 지뢰처럼 깔린 혐오를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은 여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인도여성들을 돕는 YWCA '도소프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필자

빠져나갈 구멍도 맞설 방법도 없이 순간만을 모면하며 도망치기를 한참, 낯선 여성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설명과 논박으로 무장한 정제된 언어라는 익숙한 대응방식 대신에, 여태껏 영문도 모르게 마주했던 혐오를 똑같이 모방하여 되돌려주는 처음 보는 방식을 택했다. 낯선 얼굴을 한 이들은 사실 분개하고, 달음박질치고, 비참해하고, 순간을 모면하며 숨어있던 나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단 하나만 존재하던 목소리의 곁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란히 서고 보니,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혐오의 덩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어이없을 만큼 작았다. 여태껏 겨우 이것을 두려워했던가?

벗어던질 수 없는 성별에 쏟아지는 혐오에서 완전히 도망칠 수 있는 길이란 애초에 없었으나, 나는 언제나 출행량을 쳤다.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생겼다. 혐오를 떠안지 않고 되돌려주는 여성들이 전면에 섬으로써 안전해졌다. 공격을 받을까봐 불안에 떨지 않은 채로 어떤 말을 할지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닫아 두었던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지배했던 침묵의 나선은 그렇게 의외의 방식으로 끊어졌다. 내내 등졌던 혐오를 향해 처음으로 돌아섰다. 이젠 제법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 

1) 최근 화제가 된 페미니즘 책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를 펴냈다.

## 청소년 성착취 채팅앱 고발하다

안수경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장

### ■ 청소년 유혹하는 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1997년 우리 사회가 받았던 충격은 매우 컸다. 그 이후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수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성매매 유형으로 정착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10대 여성들도 계속 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 성매매 청소년 적발 인원은 2006년 1,745명에서 2012년 4,457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의 78%가 일명 ‘사이버 미아리’로 불리는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10대 여성들은 소수 가출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생계수단으로 시작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10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정착한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고 폭행과 감금,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협박, 성병 등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또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학대를 넘

어 인권침해와 성착취 주범이 되고 있다. 이렇기에 청소년 성폭력·성착취 유인 초기 경로가 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으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 인식은 10대 여성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 구매 남성과 조건을 합의해서 하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는 경향이 크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사회적 배제의 책임을 10대 여성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반인권적 처사다.

청소년 성매매를 ‘자발적’ 성매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위험한 판단이다. 10대 여성들이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성매매 중단이 왜 어려운지, 성매매를 중단했다 재유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매매 경험이 이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사회 관심과 개입이 먼저 필요하다.

### ■ 여성혐오를 넘어선 청소년 성착취

2016년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단연 ‘여성혐오’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일어난 강력범죄는 총 1만 5,227건인데 약 87%는 여성이 피해자였다. 같은 기간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1,637건에 불과하다.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도 51%로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G20)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08). 이런 통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구 절반이 넘는 시민이 성적 희롱과 능멸을 당하며 심지어 생존 위협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수경 Y-틴위원장(맨 왼쪽)이 고발기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자 YWCA 실행위원(맨 왼쪽) 등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여성인권과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여성혐오에 속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온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열등한 하나의 육체적 대상 나아가서는 성적 만족을 제공하고 남성중심의 가족·친족을 재생산하는 성기적(性的)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단지 몸·육체·성기로 환원되고, 남성에 의한 이용·수단화·착취·폐기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혐오, 성학대와 성착취는 피해자 개인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와 양극화에 따른 인간성 파괴, 생명파괴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성착취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채팅앱’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극한의 물질주의에 의한 반인륜적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돈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성인들이 만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을 의미하는 게시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성학대, 성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1% 승자독식 사회, 고용불안 심화, 생계형 자영업 포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여성과 약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살해를 낳고 있다. 전국 52개 YWCA에서 활동하는 5,000여 명의 Y-틴과 함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YWCA는 성을 상품화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YWCA는 성매매 알선·유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통용될 수 없도록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단체와 함께 10월 11일(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Y-틴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일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여성주의 관점에서 잘못된 성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 등으로 희생당하는 여성이 더 이상 없도록 청소년 성매매를 청소년 인권침해와 성착취로 보고 사회책임을 다할 것이다.

#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YWCA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연루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 앞에 온 국민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과 비리는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다. 그 분노는 이미 전국 각지의 대규모 시위로 분출됐고, 수많은 성명 발표와 서명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는 국정운영 전반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연설을 비롯해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와 관련한 국가기밀이 누설되었다. 청와대, 부처의 주요 인사와 정부 조직구성까지 관여했다. 각종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협박했다. 문화융성, 창조경제, 평창올림픽, 설악산 케이블카, 개성공단, 역사교과서, 의료민영화, 방산 등 경제, 문화, 체육, 교육, 의료, 통신, 환경, 국방까지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정부, 대학, 기업을 한꺼번에 움켜쥔 딸 정유라 부정입학과 특혜 의혹에서 최순실씨 권력은 더욱 생생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와 의혹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국가권력이 사유화 됐고, 국가보안이 뚫렸으며, 국가기강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4년간 국정농단이 가져온 오늘의 현실이다.

국정은 엉망이 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양극화는 심해졌고, 비정규직은 늘었다. 부동산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청년층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고령층은 노후대책 없는 황혼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외교는 널뛰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밀실야합으로 처리했으며, 일방적으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철수를 강행했다.

여성혐오와 여성대상 폭력은 심각해지고, 불안은 커져만 간다. 핵폐기물과 지진대 위에 버섯이 세워진 핵발전소는 늘어났고, 재난 때마다 정부의 무능은 반복됐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는 여전하다. 절망한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탈출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이 낳은 결과인 셈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구조’를 기다려왔다”고 개탄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철저한 무능이 불러온 사태다. 이를 방조하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들과 관료, 집권여당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정농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거나 타협, 용인하고 더 나아가 부정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 권력을 유지한 기업, 대학, 기관, 언론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연일 드러나는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구현해야 할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부친 최태민씨 세력이 40년 넘게 권력을 이용한 탐닉을 계속할 수 있던 배경에는 사회 정의에 침묵하고 기득권이 결부된 부정을 방조한 일부 기독교 목회자와 단체들의 비호가 있었다. 지금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일부 기독교 단체는 부끄러운 시대 일원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성과 회개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누가복음 19:39~40)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YWCA 회원들은 분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약자가 보호받고 생명과 정의가 존중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기강과 민주정치 원칙을 훼손한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사태를 축소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엄중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국회는 모든 진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진실규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라.

하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이나 세력의 일탈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최순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책임이다.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을 대변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던져버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무능이 불러온 사태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한국YWCA연합회

#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최순실의 국가인가!

##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대학·청년YWCA-대학YMCA 시국선언문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와 대학YMCA전국연맹은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따르며 청년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는 청년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락 사건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최순실 한 개인과 이와 거미줄처럼 연루되어 있는 사적 집단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 우리는 최순실이 조정하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히 무너졌다. 국민의 뜻을 대의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과 기밀문서의 열람 등 국정에 개입하였고, 청와대가 최순실과 그의 사적 집단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개입했으며, 최순실의 측근들이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도록 개입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을 최순실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우리 청년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강력히 분노하며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최순실과 그의 사적조직이 군림하는 왕정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말인가?

### 왜 우리 청년들이 실현하고 지켜온 정의의 역사와 노력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해온 역사이다. 독립운동의 역사, 반독재의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 등 수많은 정의의 역사들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감할 수 없다. 또한,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인 정유라의 행태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깊은 절망감을 남겼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개인을 위한 학칙 수정, 교수들까지 쥐락펴락하는 금수저를 뛰어 넘는 신의 수저에 버금가는 짓들을 해왔으며, SNS를 통해 ‘돈도 실력이니 돈 없으면 부모

를 원망하라’는 망언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밤낮없이 땀 흘리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노력들을 폄하한 것이며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에 자괴감이 들게 하였다.

###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끝은 어디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이나 해명 하나 없이 사전 녹화된 영상만으로 이 큰 사건들을 끝내려 하였다. 대통령 사과는 황당한 변명에 불과했고 진정성과 책임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우롱한 것이다. 이미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상 최대에 달했고, 어떠한 사과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하나하나 밝혀지는 비리와 최순실 일가가 누리던 특권들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최순실의 귀국과 함께 제대로 된 검찰조사를 바라고 있지만 시작부터 즉시 소환이 아닌 최순실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검찰의 행동으로 보아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YWCA와 YMCA의 청년들은 기독교 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역사의 주체들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청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이상,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여왕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자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정의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성역없는 수사와 투명한 절차로 이 사태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관련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주인으로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최순실과 그 집단들의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감행하라!**

2016년 11월 1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대학YMCA전국연맹

# 그녀들은 왜 '검은 시위'를 했는가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검은 시위'가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한국에서도 '검은 시위'가 등장했다. 서울YWCA는 '여성인권,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낙태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11월 8일(화) 서울 YWCA 강당에서 열었다. 낙태금지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계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으로써 앞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낙태금지에 관한 논란이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간주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를 시작으로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반면 낙태죄 존치는 양성 모두의 임신·출산·양육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낙태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폐기하고 현재 처벌규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두 달여간 낙태 찬반논란으로 큰 혼란을 낳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결정은 낙태 찬반에 대한 비판을 신경 쓰면서 낙태 허용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규제기준을 답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저출산 극복, 낙태금지로 해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비혼의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 조심하지 못한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거나, 남자 발목 잡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곤 한다.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며 임신중절 수술비만 남기고 무책임하게 잠적해버리고, 여성의 낙태사실을 헐박의 빌미로 악용하는 남성들도 비일비재하다. 혹여 미혼모의 험난한 길을 선택한 여성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

분투하는 중에도 사회 냉대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을 고민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낙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고, 여성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를 담아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로 나선 여성들은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폴란드에서도 지난해 10월 '법과정의당'이 발의한 전면적인 낙태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여성들이 검은 시위를 벌였다. 성폭행 등 예외 없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신부와 의료진을 모두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여성들의 검은 시위로 철회되었다.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논란의 본질적 문제가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형법은 낙태에 관해 남성(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자보건법은 남성(배우자)에게 오히려 낙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낙태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 파트너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구걸하거나, 다른 남성에게 그 역할의 대행을 요청해야 하는 모순에 봉착한다. 여성의 자기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낙태에 대한 처벌은 낙태수술 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로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본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독립된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낙태가 허용되면 출산에 대한 남성들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욱 낙태로 내몰리게 되며, 이는 여성을 사회약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참가자들은 여성인권, 생명존중이 함께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했다.

## 애 낳고 살만한 세상부터 만들라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낙태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변호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성관계, 피임, 임신, 양육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베일리이화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현행법은 여성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 범위를 사회적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팀장은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것을 강요받지 않고,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당사자가 출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처벌강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순 경북대 교수는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로 낙태로 인한 여성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낙태의 후유증과 책임은 여성 혼자 짊어져야 할 족쇄가

된다. 낙태는 난임, 불임의 원인이 되며 자살충동, 우울증 등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명은 연속선상에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부성책임 강화를 위해 낙태를 요구한 남성도 처벌하고 친생부의 부성책임 판결 강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성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엄마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가치를 앞세워왔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은 잘못된 구도다. 엄마와 아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충돌시켜서는 안 되고, 두 가치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어떤 여성이 쉽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여성이 낙태 수술대 위에 오르고 싶을까.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낙태의 책임을 짚어준 여성과 책임 및 처벌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있는 남성의 문제, 낙태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조성이 핵심이다. '애 낳고 살만한 세상부터 만들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 

# YWCA는 탈핵사회 시작을 알린 신호탄 탈핵운동가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편집실



1988년 고향에서 울진 핵발전소 1호기 가동을 보며 반핵운동을 시작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간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에너지기후위원장,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거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YWCA 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4년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받았다.

“막상 내 눈으로 핵발전소가 연달아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담했다. 물도 삼키지 못할 만큼 큰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렸다. 모든 게 탈핵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 잘못인 듯 여겨졌다.”

탈핵운동가 김혜정이 인생의 휴지기를 갖고자 잠시 일선을 떠났을 때 그날이 왔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다음날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가 폭발했다. 환경운동연합으로 달려갔다. 바로 복귀해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운명처럼 다시 탈핵운동으로 돌아갔다.

### 후쿠시마가 바꿔놓은 사람들

후쿠시마 사고 직전 한국 탈핵운동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88년 9개였던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 미디어는 친원자력 일변이었고, 탈핵운동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근처 주민과 환경단체 위주로 이뤄졌다. ‘원자력 안전신화’를 내세운 핵산업은 확장되고, 정부와 업계는 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법을 바꿔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바꿔놓았다. 사회 곳곳에서 탈핵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엄마모임, 청소년모임, 종교단체, 국회의원모임, 지방단체장모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탈핵운동에 동참했다. 천주교와 원불교는 교계 차원에서 공식으로 탈핵선언을 했다. 개혁적인 개신교도 합류했다.

그러나 그는 더 절박해졌다. 한국 탈핵운동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치열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시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를 깊이 고민했다. 독일이 탈핵에 성공할 수 있던 것도 결국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대중에게 좀더 쉽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다. 그는 “탈핵이 대중화될 수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심정이었다”며 웃었다.

### 구세주 ‘YWCA’의 등장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2013년 1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YWCA에서 연대단체로 들어오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는 한국 탈핵운동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겠구나를 직감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만세를 부르고 싶었다”고 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에 가장

관심이 컸던 층이 여성이었다. 한살림, 아이쿱 등 생협단체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YWCA의 결합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탈핵운동 대중화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했다.

YWCA에서 요청하는 강연은 모두 다녔다. YWCA 목적인 정의, 생명, 평화의 가치와 탈핵운동 목적인 생명의 가치가 만나면서 생명평화운동으로 넓혀질 것이라고 본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YWCA

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100년 역사를 가진 여성단체의 저력, 기독교 단체의 상징성은 진영논리에 갇혔던 탈핵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장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YWCA 특징으로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며, 실천이 앞선다’는 점을 꼽았다. 2014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외치며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말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실천하는 지속성은 여성조직이기에 가능한 힘”이라는 것. 그는 이런 YWCA 정신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손뼉을 쳤다.

### 원자력집단 내 송곳 역할

여성에게 탈핵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여성은 생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설명에 본능적으로 핵의 위험성과 반생명성을 간파한다”면서 “여성은 미래를 본다. 내 아이 지키러 나왔더니 우리 아이가 보이고, 우리 사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탈핵에 대한 사회 관심으로 2013년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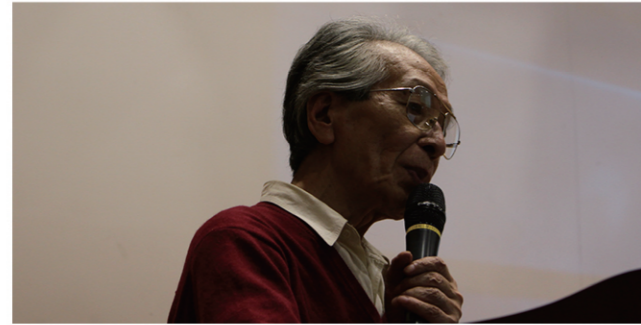
2015년 1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위원

생겼다. 그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와 함께 첫 야당 추천의 제2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 3기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원자력확대론자’ 일색이다. 표결을 부치면 항상 7:2 결과가 나온다. 그는 “우리 둘이 들어가서 친원자력 결정구조에 바늘구멍 하나를 낸 것과 같다”고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풍선을 터뜨리는 힘은 송곳의 날카로움”이라면서 “나의 작은 균열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면 거대한 벽도 허물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자력집단 내 송곳’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한 그는 “거대 원자력집단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세 번 만에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원안위 수준이다. 그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원안위가 정부와 원자력 산업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탈핵운동가 김혜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자던 인터뷰는 두 시간을 넘어서도 YWCA 이야기로 끝이 나질 않았다. YWCA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YWCA가 만든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인사로 대신했다. 김혜정과 YWCA의 만남, 그것은 운명이었다. 

# “경주 지진은 치명적 내륙형 직하지진” 후쿠시마 사고 예견한 히로세 다카시의 경고



편집실

일본 탈핵평화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히로세 다카시는 10월 말부터 11월초까지 서울, 울산, 경주, 부산에서 잇따라 강연을 했다.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심층취재와 현장조사, 탁월한 분석과 통찰로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도쿄에 핵발전소를> <체르노빌의 아이들> <존 웨인을 누가 죽였는가> <재권력> 등을 펴냈다.

## 한반도 60개 활성단층 조사 시급

5년 전 일본 동일본 지진은 9.0으로 강했지만 내륙형이 아닌 일본 열도 130km 앞바다에서 일어났다. 동일본 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지구 전체 지각을 비틀어 놓았다. 올해 구마모토 지진이나 경주 지진도 이런 흐름 속에 발생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그 밑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뜻이다. 활성단층은 살아 있는 단층이며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입실단층(울산단층, 동래단층, 모량단층, 밀양단층, 자인단층, 입실단층을 합쳐 양산단층대라고 부름)에서는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단층이 상하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직하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다(1997년 한겨레신문).

그동안 한국에서는 고리와 월성에 핵발전소를 증설할 때 활성단층이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170km에 걸친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이 움직였다는 것인데 내륙에 이렇게 긴 단층이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한국지질연구원은 2012년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위험성을 은폐했다. 한반

“한국에서 일어난 5.8 규모 경주 지진은 가장 무서운 내륙형 지진이다. 세계적으로 지구단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6.5 규모의 한국 핵발전소 내진설계로 막을 수 없는 7.0 규모 이상의 직하지진이 올 수 있어 핵발전소 대형사고 위험성이 크다.”

히로세 다카시의 경고다.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난 30년간 그의 예측이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다. 그가 방사성 위험성을 알리는 논문을 들고 출판사를 찾았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었다. 이듬해인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다. 그는 1989년 <원전을 멈춰라>(원전 위험한 이야기)에서 후쿠시마현에 밀집된 핵발전소가 지진해일로 멜트다운 될 경우 세기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2010년 <원자로 시한폭탄 대지진에 떨고 있는 일본 열도>에서도 대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중대사고를 예고한 바 있다. 그의 예측대로 2011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가 폭발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팔 등의 지진 발생도 예측했다. 그는 “하늘이 주는 경고”라면서 경주 지진이 내륙형 직하지진이라는 데 주목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직하지진에 이처럼 지반이 붕괴되므로 내진성 상관 없이 핵발전소는 완전 파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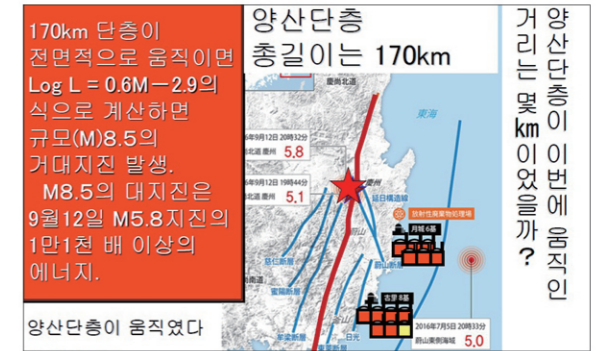
2016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 단층

도 동남부 일대에는 약 60개의 활성단층이 있다.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곳이다. 핵발전소 부지 안까지 뻗어 있을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지진이 일어날 때 핵발전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제어봉을 넣어 핵분열을 막는 것이다. 지진파는 초기진동을 일으키는 P파와 본진인 S파로 전해진다. 진짜 무서운 것은 상하로 흔들리는 S파다. 보통 P파의 수평 흔들림과 좌우진동을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한다. 지진계가 P파를 감지하면 발전소에서 제어봉을 넣는다. 후쿠시마의 경우 P파가 오고, 30초 후 S파가 온다는 걸 알고 핵분열을 정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직하지진은 P파와 S파의 시간차가 거의 없다. 제어봉 넣을 시간도 없이 핵발전소가 날아간다. 1.5m 정도 직하지진이 일어나면 지반이 꺼진다.

## 핵발전소에 비상대비 체제는 없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전제로 설계된 한국 핵발전소의 6.5 내진기준은 이미 낡았다. 경주 지진 이후 한국 정부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 최대지반가속도 0.2g을 0.3g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7.0 이상 지진, 특히 활성단층 직하지진 위험에 대비하기엔 턱없이 낮다.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과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 내진기준을 최대 2.34g으로 높였다.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센다이원전은 0.63g으로 강화했지



경주지진과 양산단층의 관계

만, 구마모토 지진 진원에서 기록된 최대지반가속도 1.43g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마모토 지진은 경주와 마찬가지로 내륙형 지진이였다. 최대지반가속도가 1g을 넘으면 지상의 물체는 허공에 떠버린다. 아무리 견고한 구조물도 무너져버린다. 한국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면서 암반층과 흙으로 되어 있는 연약층을 고려해 계산하는 ‘하기토 리파 해석’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또 대형 지진의 절반은 활성단층이 없다고 했던 곳에서 일어났다.

고리수력원자력본부는 재해비상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높여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핵발전소에 비상체제는 없다. 사고가 일어나면 끝이다. 고리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380만 명 동남권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폐허가 된다. 핵발전소 사고에 행정구역 경계가 무슨 소용인가?

후쿠시마 사태가 쓰나미 탓에 사고가 났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현장 작업원들은 지진 직후 핵발전소 배관이 파손됐다고 증언했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 말고는 비상대비 체제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핵사고가 일어나면 한국은 사라진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지진데이터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경고다.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드시 막겠다

운영인 부산YWCA 간사



동부지역 15개 YWCA 회원 300명은 11월 14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평화행진과 차량 퍼레이드를 펼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표결을 강행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고리핵발전단지 10기나 가동하는 다수호기 안전평가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허가했고,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380만 명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과 500회가 넘는 여진으로 핵발전소 위험성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 YWCA, 다시 한 번 고리로 모이다

2015년 2월 전국 YWCA에서 모인 회원들은 고리원자력본부 일대에서 10만 회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십자가 행진을 벌였고, 그 노란 십자가의 물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YWCA의 간절한 기도와 행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활발하게 생명과 평화세상을 지키기 위한 탈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평화행진에 동참하

기 위해 11월 14일(월)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부지역 15개 YWCA(부산, 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사천, 안동, 양산, 양산, 진주, 진해, 창원, 포항, 통영)가 주관하여 각 회원YWCA 대표, 자원지도자, 실무활동가 등 300명이 다시 한 번 고리에 모였다.

부산과 경남지역 YWCA 실무자들은 당일 오전부터 행사를 준비했다. 아침에 떨어지던 빗방울은 평화행진 시작 전 그쳤고 차량 퍼레이드를 위해 각 지역에서 출발한 50여 대 차량이 연이어 도착해 평화행진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부 여는 의식이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홍보관 옆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너른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사회로 하신규 부산YWCA 회장 인사말,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격려사가 이어졌다.

하신규 부산YWCA 회장은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생명 안전을 담보로 한 신고

리 원전 건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의 연대사로 평화행진의 힘을 보탬으로써 동부지역 15개 회원YWCA를 대표한 경주, 김해, 진해, 창원, 포항 회장단의 성명낭독은 감동과 함께 YWCA의 탈핵을 향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 300개 노란 바람개비, 50대 차량 물결

2부에서는 승용차 50여 대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지진지대에 원전 건설 절대 반대’ 홍보물과 깃발을 꽂고 고리스포츠문화센터 주차장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까지 차량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3부는 평화를 상징하는 300개의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친환경 에너지사회의 전환과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거쳐 고리인재개발원 공원까지 20분간 평화행진을 이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공원

에서 4부 마무리 의식이 진행되었다. 무섭게 늘어진 전깃줄,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송전탑,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들로 둘러싸인 그 곳에서 300명의 회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평화행진’을 마무리했다.

2014년부터 탈핵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한 YWCA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치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펼치며 탈핵의 중요성과 우리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장 28절) YWCA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탈핵을 외치며 정의를 위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평화행진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소망한다. ♡

## YWCA-YMCA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취소하라”

서울에서도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은 11월 14일(월) 낮 12시 한국YWCA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 임원, 실무활동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YWCA 리타 무암보 프로그램 국장도 동참해 탈핵을 지지했다. YWCA와 YMCA는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이 국정을 파탄시키는 상황이 핵재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취소, 활성단층 주변 핵발전소 가동 중단, 핵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방사능 대책수립,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대상 이길여 총장, 젊은지도자상 신애라씨, 특별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젊은지도자상은 텔런트 신애라씨, 특별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올해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11월 3일(목) 오후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어 이길여 총장에 대상을, 신애라씨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 의료인, 교육자로 헌신한 이길여 총장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자 가천길재단 회장은 전문의료인 출신으로 박애와 봉사의 삶을 대학교육으로 확장해 교육자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았다.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 의사로 출발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취약지역 병원운영과 개발도상국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등으로 국경을 넘는 봉사정신을 실천했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운영에 깊이 헌신한 여성교육자로서 삶도 높이 평가됐다.

이 총장은 수상소감에서 나라 없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최빈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역할을 고민했던 삶의 역정을 담담하게 밝혔다. 올해 84세인 이 총장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못지않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금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남은 생을 인재양성과 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양문화 개선에 힘쓴 신애라씨

텔런트 신애라씨는 입양 인식변화와 해외아동 후원을 통해 우리 시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운 공로로 젊은 여성지도자상을 받았다. 신씨는 국제어린이 양육기구인 한국컴패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10여 년간 세계 빈곤아동을 돕고, 일대일 결연에 적극 참여해 각국 아동 50여 명을 사랑으로 돕고 있다.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봉사를 위해 아프리카 여정에도 여러 번 올라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양육법에 전문성을 갖고자 미국에서 공부 중인 신씨는 강의 일정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나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제7회 특별상 수상자이자 입양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말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이 대리 수상했다.

## 역사 진실을 밝혀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올해 3년 만에 수상자가 탄생한 특별상은 국가전쟁의 피해자인 자신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여성인권과 명예를 되찾는데 평생을 바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았다. 일본의 범죄은폐와 역사왜곡 속에서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모든 여성을 위한 인권운동가이자 평

편집실

화운동가로 우리 시대 진정한 여성지도자라는 의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는 고령에도 김복동, 길원옥, 박옥선, 안점순, 이옥선 다섯 분의 할머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상소감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복동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의 일방적 합의와 한국 정부의 '위안부' 재단설립 강행, 치유금 지급 강행 등과 관련해 국가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의식 부재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가 1억원을 받으려고 여태까지 살았겠는가. 이것은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과거 역사의 문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를 팔아먹을 줄 몰랐다”면서 “일본이 우리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지해 힘겹게 한 발 한 발 걸으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할머니들의 숙연한 모습

에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YWCA 지도자로서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터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2003년 제정되었고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영란 전 대법관,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故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 윤정옥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故 정광모 전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혜 회장, 이길여 총장, 말리 홀트 이사장, 박진회 은행장, 안점순·길원옥·김복동·박옥선·이옥선 할머니).

## 수상자들 상금기부, 여성지도자상 뜻을 빛내다

이번 수상자들이 모두 상금을 기부해 한국여성지도자상의 뜻을 다시 한 번 빛냈다. 대상을 받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상금 전액에 후원금을 더해 모두 3천만원을 한국YWCA 청소년회원인 Y-틴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이 총장의 Y-틴 장학금은 어려운 형편의 전국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텔런트 신애라씨는 상금 전액에 후원금을 보태 5천만원을 홀트일산복지타운에 기부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25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신씨는 연예인봉사단 방문을 계기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상금을 나비기금에 보태서 형편이 어려워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제안으로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조성된 나비기금은 세계 무력분쟁지역에서 전시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고 있다.

## ‘소녀’가 ‘소녀’에게 들려준 평화 이야기

천유란 한국YWCA연합회 간사

리는 부스를 운영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 전쟁을 겪은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

2004년 문을 연 정대협 쉼터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Y-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복동, 나이는 91세고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담담한 할머니들의 인사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설명 없이도 그대로 느껴졌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Y-틴 소녀들의 나이는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나이와 꼭 같다. Y-틴 소녀들은 전쟁을 겪어보지도, 보릿고개로 배고픔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그런 소녀들이 나라를 잃은 시절 강제로 잡혀가서 성폭력을 당한 할머니들의 '소녀 시절' 고통스런 기억을 헤집는 질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여전히 풀고 있지 못하는 숙제이자,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이기에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같이 어린 친구들이 할머니들이 겪은 그 끔찍한 일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스에서 보면 일본에서 10억엔을 주겠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2015년 12월 29일, 한일정부의 일방적 일본군 '위안

부' 문제 합의에 대한 할머니들 생각을 물었다. 할머니들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실망이 대단했다.

“한일정부 협정이 처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도 했어. 그때도 우리는 빠졌지. 그랬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그 딸이 대통령 될 때까지 해결이 안됐어. 이번에도 우리에게는 한 마디 말도 없었지. 지금까지 싸운 게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자원해서 갔다면 위로금 받고 끝내면, 우리는 평생 위안부 표를 달고 살아야 해. 그런 위로금이라면 백억 아니라 천억을 줘도 안 받아.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팔아먹느냐고. 일본 정부가 '우리들이 한 짓이다, 잘못했다, 할머니들 용서해주시시오'라고 인정하고, 법적으로 우리 명예를 배상해야 해결되는 일인데...”


### 평화를 외치는 '소녀들', Y-틴

Y-틴 소녀들은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정부가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너희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과거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없앤다면 말이 되겠느냐? 우리 정부는 소녀상 철거하는데 나서지 말고, 일부 정부에서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노력해야 해.”

할머니들은 한참 공부할 나이에 끌려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했다. 이런 할머니들의 바람은 형편이 어렵거나 전쟁으로 교육의 기회를 뺏긴 전시국가 아동을 돕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할머니들의 후원금과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발족된 '나비기금'은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과 무력분쟁지역 아동을 돕고 있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일본군처럼 저지른 범죄 피해자를 찾아 사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내가 열다섯 살에 끌려갔거든, 공부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야. 나도 그대로만 자랐다면 공부해서 큰일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만약 일본에서 배상받으면 돈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 주는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게 나비기금이야.”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평화를 외치는 소녀들은 할머니들처럼 올바르게 살고 싶으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할머니들은 이런 억울함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국 시선으로 잘못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서로 싸우지 말라고도 했다. “역사를 잊으면 또 당한다, 우리처럼...”이란 할머니들 부탁이 잊히지 않는다. 



Y-틴 소녀들과 할머니들이 활짝 웃고 있다(왼쪽부터 박민주, 길원옥, 김복동, 김수빈).

이른 추위가 찾아든 10월 끝자락. Y-틴 전국협의회를 대표해 두 명의 소녀들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자리잡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 '우리집'을 찾았다.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2학년 박민주, 1학년 김수빈 학생이다.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Y-틴에게 이번 만남은 각별하다. 그동안 책이나 영화 등으로 접했던 역사 속 인물이자 그 삶 자체가 역사인 분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 중점운동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로 정한 Y-틴 전국협의회는 캠페인, 플래시몹,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에는 이예지 회장이 YWCA 워커프로 발표자로 나서 세계 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알렸다. Y-틴 회원 30여 명은 컨퍼런스 기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

### 인터뷰 후기

### 역사를 바로알고, 아는 만큼 행동하자

역사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다는 소식에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들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무지로 할머니들에게 상처 주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 쉼터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은 따뜻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할머니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은 범죄를 아주 쉽게 해결하려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태도였다. 전시범죄 인정, 법적 배상과 무엇보다 당사국의 진

심어린 사과만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시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잊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역사를 바로 알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그때엔 정상적인 사과가 당연한 대한민국이길 꿈꿔본다.

**<박민주, 김수빈>**

# 침묵과 방관도 폭력 '서로 지킴이'가 되자

김명숙 천안YWCA 사무총장

## 성폭력예방위해 섬마을을 찾다

지난 5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학부모 2명과 1명의 주민이 포함된 남성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이어 6월 신안군 섬마을 30대 공무원이 친구 딸을 성폭행하는 등 도서지역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인권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도서지역 성폭력의 심각성과 예방교육 필요성이 확산되자 여성가족부는 충남, 경남, 전남 3개 권역 도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일반 주민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했다.

201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충남지역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천안YWCA는 지난 3월부터 도내 16개 도서지역에서도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지역이 성폭력 사각지대가 된 데는 지리적, 사회적 특성이 작용한다. 어업 비중이 높은 지리특성상 공동생산과 어장이용 등으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높고, 지리적 고립감으로 폐쇄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수송수단 제한, 정보부족 등은 정책 무관심을 더하게 하고, 지역 교류 부재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고착되게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집단내 힘 있는 자의 폭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은닉해 지속적 폭력으로 발전할

여지를 만든다. 사회특성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사회적 자원 유치가 부족해 도로, 상수도,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인구 100명 거주 유인도서 28개에 경찰관서가 배치되지 않는 등 치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왜곡된 통념, 편견 깨뜨리기

천안YWCA는 8월 원산도를 시작으로 보령시,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등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을 찾아가 성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11월까지 20여 회가 진행된다. 성폭력 인식 개선과 폭력예방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이 서로 지킴이가 되어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의 특성, 관련법,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지원체계,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킴이 역할 등의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폭력과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함이다.

도서지역은 교육장소와 기자재가 열악해 교육환경도 취약하다.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으로 과거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성폭력 사



보령 원산도에서 필자(맨 왼쪽)가 주민교육을 하고 있다.



보령 삼시도 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모습

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행동에서 원인과 과실을 찾는 '피해자 유발론' 통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로 가해자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일 경우 공동체 유대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성폭력이 피해자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알리고 왜곡된 통념과 편견을 깨뜨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이다. 내 자녀, 손자, 노인, 이웃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방관이며 방관도 폭력임을 알게 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주민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서로 지킴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안전한 지역사회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 저항 그리고 긍정의 피드백

일부 남성 교육생의 경우 초기에는 강한 저항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가 있다면 폭력도 가능하다',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남자가 그

럴 수도 있지' 등의 생각을 가졌던 남성들은 "잘 모르고 했던 성적 언동이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깰 수 있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더불어 나와 이웃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범죄신고 112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과 같은 지원기관에 신고, 상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 대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전국 17개 시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국 권역별 18개 지역지원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천안YWCA는 올해 도서지역 성폭력예방교육 15회 220여 명을 비롯해 성폭력예방교육 163회 5,000여 명, 가정폭력예방교육 35회 1,200여 명을 교육했다.

폭력상황을 알면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닌 지킴이의 눈으로 함께할 때 폭력 없는 사회에 희망의 밝은 불이 켜질 것이다. 여성사회단체로 천안YWCA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 특수학교 금융교육 필요하다

정석진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부부장

“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000인데요, 혹시 씨티은행에서 소림학교 금융교육 진행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소림학교요?”

삼복더위가 시작된 지난 7월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다. ‘무술교육 전문 특수학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소림학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었다. 한숨과 당황스러움이 몰려왔다. 일반 학생들에게도 금융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이 가능할까?

그러나 “씨티은행 정도의 노후우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는 수화기 너머 목소리에 “아~ 네, 한 번 해 볼게요”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씽크머니’가 생각나서 한국YWCA연합회 간사에게 연락하니 나와 비슷한 반응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 ■ 씽크머니 첫 ‘지적장애 학생’ 금융교육

그래도 금융교육이 가능할 지, 어떻게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담당 교사에게 전화했다. 류미영 교사에 따르면 소림학교에는 초·중학교 1학년 부터 전문대 성격의 전공과 학생들까지 14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고, 지적 수준은 전공과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금융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는 2015년부터

‘재미있는 금융교육 씽크머니’라는 기치를 내걸고 금융교육 혜택이 적은 도서산간 학교들을 찾아가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착한 기업가 체험’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를 이루고, 조별로 부여된 물품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며, 이윤을 남겨 기부하거나 저축하는 체험을 통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소림학교 요청은 ‘찾아가는 씽크머니’ 프로그램 덕분에 길을 찾게 되었다. 교육은 10월 14일(금)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 광주지역에서 체험형 금융교육인 ‘찾아가는 씽크머니’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광주YWCA가 지원을 맡았다.

광주YWCA 간사는 씽크머니 사상 처음인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소림학교, 한국YWCA연합회, 씨티은행 담당자인 나와 다방면의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해주었다. 교육 전날 학교를 방문해 교육자재를 준비하고, 교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사전교육까지 완벽했다.

### ■ 금융에 대한 감각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즐비한 길을 따라 도착한 소림학교는 운동장에 흙먼지가 날리는 전형적인 시골학교였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건강검진 예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일부 학생을 뺀 전교생이 체육관으로 모였다. 처음 보는데도 아이들마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학생들이 직접 판매할 물건을 만드는 모습

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올랐다.

김시영 교장을 비롯해 나권수 교감, 이번 교육을 기획한 류미영 부장교사까지 모두 이번 금융교육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 기대라는 것은 이번 금융교육이 소림학교 학생들을 금융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라도 금융에 대해 조그마한 감각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간단한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교육 시간동안 아이들의 참여 열기는 점점 높아졌다. 조별로 10명의 학생을 배정했다. 10개 조가 편성되었고, 각 조에는 교사와 광주YWCA 씽크머니 강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착한 기업가 체험’은 주어진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하므로, 일차적으로 물건 만들기에 열심히 참여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휠체어에 앉아서 비드를 꿰고, 예쁘게 그림도 그려 넣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도하고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들의 말과 손놀림도 바빠졌다.

### ■ 어디서든 ‘씽크머니’는 가능하다

아이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옆 건물에서는 학부모 20여 명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맨 왼쪽이 필자).

아이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중심으로 학부모 금융교육이 병행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알려주는 방법, 가정 내 금융문제를 이야기하는 방법 등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강의라서인지 학부모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숨과 당황스러움으로 시작된 소림학교 금융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광주YWCA 씽크머니 강사들까지 한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어느덧 수업종료 시각을 향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팔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저축과 기부라는 단어도 들어보게 되었다. 아직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앞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다시 찾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해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 바람대로 이번 금융교육이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앞으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연하다’라는 대답이 뿌듯함과 함께 떠올랐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준 광주YWCA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소림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어디서든 불러만 준다면 ‘찾아가는 씽크머니’ 금융교육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사회 속 교회’로서 시대가치 이끌길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이번 호에서는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을 부서연 제주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약력

- 1982~1983 제주YWCA 회계
- 1984~1992 제주YWCA 이사
- 1993~1994 제주YWCA 부회장
- 1995~1996 제주YWCA 회장
- 1997~1998 제주YWCA 어린이집 위원장
- 1998~2000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00~2002 대한YWCA연합회 공천위원
- 1999~2013 제주YWCA 이사
- 2014~2015 제주YWCA 건물관리 위원장
- 2015~현재 사회복지법인 YWCA 양지회 감사

### ‘결혼식’으로 시작된 YWCA 인연

-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YWCA와 첫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릴 때 친구 엄마 전도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 안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광주YWCA 회관에서 식을 올렸어요. 그게 첫 인연이겠지요. 이후 1973년 남편 고향 제주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제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주YWCA 창단 멤버이자 6대 회장인 조혜숙 이사님 권유로 제주YWCA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 제주YWCA 회계·이사·부회장·회장·증경회장, 연합회 실행위원·공천위원까지 YWCA 자원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YWCA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YWCA 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서 회장직을 맡고 봉사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기도의 힘으로 YWCA 운동을 지속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연합회와 제주YWCA 자원지도자 지도력이 항상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주YWCA 어린이집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무엇입니까?

“제주YWCA 어린이집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제주여성 중에 해녀가 많은데 봄이 되면 젓먹이를 떼어놓고 가족과 떨어져

바다로 나가 일하고 겨울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다 보니 보육을 담당할 기관을 세우자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1991년 6월 1일 제주YWCA가 제주도 시범탁아소로 지정돼 운영을 시작했지요.

1992년 1월 제주YWCA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범탁아소가 처음 도입된 시기이다 보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정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민

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된 어린이집인 만큼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YWCA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YWCA 모든 지도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생애 잊지 못할 회관 건축

- YWCA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제가 만난 연합회와 회원YWCA 모든 자원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연합회 실행위원 때 함께 했던故 김정옥 선생님,故 문태임 선생님, 김갑현 선생님, 김숙희 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고 YWCA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YWCA 목적문에 명시된 것처럼 ‘정의, 평화, 창조



제주YWCA어린이집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봉림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질서의 보전’이 지금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의 교회’인 YWCA가 시대 가치를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

- YWCA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회관 건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은 세들었던 건물 지하에 물이 차올라 제주YWCA 역사인 사진과 문서들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사, 실무자들의 기도제목이 ‘회관 건축’이 되었고 ‘벽돌 한 장 모으기 운동’으로 건축기금을 마련했어요. 2002년 제주YWCA 회관 건축은 내 생애 가장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좌우명을 부탁드립니다.

“YWCA 운동을 하며 힘들 때마다 ‘이사야 41:10’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 역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YWCA 운동은 늘 큰 힘이고 보람입니다.”

# 11월 13일~19일 모두 함께 가는 세상

## 제1일 모두 함께 가는 세상

누가복음 10:30~35 선한 사마리아인

남을 포용하고 내가 포용되기 위해서는 끈질긴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인종, 민족, 종교와 같은 이유로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난민사태입니다.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인도적 차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인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불의에 맞설 때 혼자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옆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새롭게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제2일 '세이프 스페이스' 만들기

누가복음 15:8~9 잃어버린 동전 비유

이해, 희망, 자유의공간 만들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를 찾음으로 이룬 온전함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려면 희망이 필요한데, 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이프 스페이스'입니다.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용기, 우리를 이해해주는 장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날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 제3일 변화하는 지도력

고린도전서 1:26~29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도적 역량 강화하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쥐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과 공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수평적 관계에서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공유하여 지도력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한을 나누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는 구체화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 제4일 존중하고 지원하며 권한 부여하기

출애굽기 2:16~22 미디안 제사장과 그의 딸들 이야기

하나님은 여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남자들을 축복하신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여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보고 즉시 도와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외지의 땅에서 집과 아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남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갖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권한을 부여하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 제5일 다양한 은사 - '나는 소중하다'

고린도전서 12:4~1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찾아내고 사용하는 방법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선하시며 창조적하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며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 제6일 아동 조혼은 우리 손으로 끝낸다

누가복음 11:33~36 몸의 등불

문을 열어 우리의 빛이 비치도록 합시다

YWCA는 아동 조혼을 여성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며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며 꺾박받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사회에 빛을 비추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의를 지적할 수 있도록 강한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어린이들을 돌보며 보호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문을 열고 온화함과 자비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빛이 아름답게 비취질 수 있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YWCA-YMCA,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관한 세계YWCA-YMCA 국제찬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두 평등한 우리'라는 주제로 11월 14일(월)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서진한 대한기독교서회 사장이 '불평등한 평등'(누가복음 15장 3~7절)의 제목으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죄인 편에 선 예수님처럼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불평등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위원, 실무활동가 100여 명이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간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 ‘벤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영화 속 예수

강도영 빅퍼즐문화연구소 영화기획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기독교 테마 영화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니아 연대기> 3부작부터 최근 선보인 <노아>,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등이 있다.

그러나 요즘 미국의 기독교 테마 영화들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소비흐름을 나타내는데 <천

국을 다녀온 소년>, <선 오브 갓>, <신은 죽지 않았다> 1&2 등 작은 규모지만 확실한 주제와 ‘영적’ 임팩트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들이 속속 제작, 개봉되고 있다.

큰 흐름에서 기독교 테마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 유형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일까? 미국 거대 할리우드 제작사 MGM사는 다시 한 번 1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을 투여해 <벤허>를 리메이크하면서 과거 영광을 재현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2016년 개봉 영화 중 ‘최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돌아온 결과는 참패였다.

## ■ <벤허> 리메이크작, 무엇이 달라졌나

한국에서는 <벤허>가 1972년 최초로 개봉한 후 무려 7번이나 재개봉하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테마를 다루면서 유사한 규모로 개봉한 영화 중 가장 기대에 밀도는 흥행 성적표를 받았다.<sup>1)</sup> 왜 관객들은 <벤허>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관객들이 리메이크를 대하는 자세는 과거 자신이 감동받은 내용을 친절하게 재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올해 개봉한 <벤허>도 어느 정도는 그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로마 지배를 받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을 갈구하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왕족 출신 유다 벤허가 경험하는 복수, 회심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전차 씬’에 현대적 스펙터클

을 가미하여 영화 <원티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액션 씬이 되었다. 하지만 러닝 타임이 3시간 반이 넘는 대서사시에서 2시간 남짓 팝콘 블록버스터로 ‘성형수술’ 수준의 변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출을 맡았던 티무르 베크맘베토브 감독도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수차례 토로한 바 있다.

영화 <벤허>가 원작과 달라지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원작에서 벤허 가문에 닥친 불행은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실수로 떨어뜨린 기왓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오해로 벤허는 왕자에서 노예로 급전직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끌려간 노예선에서 로마 집정관을 구해낸 후 그의 양아들이 되면서 벤허의 출신은 또 다시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마치 성서에 등장한 주인공들처럼 벤허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 ■ 신적 예수에서 역사적 예수로

2016년 <벤허>에서 불행은 실수가 아니라 로마 반역 세력인 젤롯당 멤버 암살 작전의 실패로 발생한다. 암살 실패의 책임을 지고 노예선으로 끌려간 벤허는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탈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간다. 로마 집정관을 살려서 그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예 편집된다.

두 이야기 모두 벤허가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성서 캐릭터의 구축을, 후자는 역사 정황상 개연성이 더 높은 이야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우리가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후 많이 접했던 테마이고 거대 서사의 전개방식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예수에 대한 묘사다. 원작은 예수를 손, 뒷모습과 실루엣 등만 등장시키며 그의 존재감을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도 익스트림 롱 샷으로 잡으면서 누가 예수 역할을 했는지 배우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즉 예수는 끌려가는 벤허에게 물을 주는 모습이나 한 센병에 걸려 있던 벤허 어머니와 동생을 낫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신적인 측면만 부각한다.

2016년 <벤허>는 예수를 전면에 등장시킨다. 그가 목수로 성장해 대패질 하는 모습부터 강점기 시대 복수와 싸움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파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삶과 방식은 기존 체제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강조했다. 예수의 신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통해 당시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강조했다.

영화 <벤허>가 선택한 이야기 전개와 예수에 대한 표현은 과거 기독교 테마 영화들이 표방한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2시간짜리 장르영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관객들은 더 이상 거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에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 테마 영화를 보는 경우 영화 주제가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영적’일 때가 많다. 이 땅에서의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기적으로 타파되고 전복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선택을 받고 있다. 영화 <벤허>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다. 예수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 원작과 아예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영화 흥행에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 궁금하다.

더 이상 과거 흥행 보증수표 역할을 했던 거대 서사 구조에 기대어 ‘기독교’ 라벨만 붙여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통전적(統全的) 기독교 모습을 담은 영화가 더욱 활발히 제작될 수 있길 기대한다. 

1) 기독교 테마 블록버스터 개봉시기와 관객현황 :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2004년 4월, 250만명),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2005년, 250만명),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2008년, 140만명),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2010년, 110만명), <노아>(2014년 3월, 200만명), <엑소더스>(2014년 12월, 150만명), <벤허>(2016년 9월, 130만명)

## 11월 월례 아침 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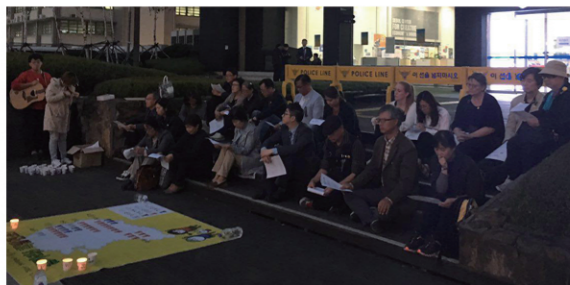


11월 YWCA 월례 아침 기도회가 11월 3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진희 목사(안산대학교 교목)가 '시가지와 시간표(시편 23편 6절)'라는 제목으로 "어떤 차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은총"임을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의로운 국가와 YWCA 운동을 위해 기도했다(자세한 내용은 5쪽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총장 모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회원YWCA 사무총장 모임이 11월 14일(월) 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2016년 새일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사회이슈를 확인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력단절 여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 동해, 서귀포, 세종, 양산, 의정부, 충주 7개 회원YWCA에서 운영하고 있다.

## '잘가라! 핵발전소' 핵그림 연합 기도회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핵그림)가 주최한 연합 기도회가 10월 20일(목) 오후 6시 서울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핵발전소가 아니

라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는 안홍택 고기교회 목사의 설교와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기독교 단체와 교인, 시민 등 40여명은 핵발전소가 사라지길 염원하며 핵발전소 현황을 그린 지도 위에 촛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 정책교육



생명비전연구소(위원장 김기동)는 YWCA 중점운동 이해와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과 실행능력 강화를 위한 2016 정책교육을 잇따라 열었다. 동부지역은 10월 20일(목) 진주YWCA, 경기·북부지역 10월 27일(목) 서울YWCA, 중·서부지역은 11월 10일(목) 대전 청소년위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여성학자 최형미 위원이 'YWCA 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라는 주제를,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이 '탈핵운동은 왜 여성주의 운동인가'라는 주제를 강의했다. YWCA 운동이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운동임을 공유하고, YWCA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 제4차 길위의 평화학교 연구모임



제4차 길위의 평화학교 연구모임이 10월 26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평화통일 주제로서 여성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모임은 장미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강의를 했다.

박 교수는 '평화통일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와 통일인식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공동체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영수 연합회 부회장, 손애령 남양주YWCA 사무총장,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과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NCS 가사지원분야 능력단위 추가개발 최종보고



3개월간 진행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가사지원분야 능력단위 추가개발사업 최종보고회가 11월 9일(수) 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로써 지난해 개발한 분야에 '공간정리컨설팅', '유품정리'를 추가해 NCS 가사지원분야는 11개 능력단위로 구성된다. NCS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은 2017년부터 NCS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과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 속초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협력사업인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10월 25일(화) 속초시 교동에 문을 열었다. 속초시에 민간지원 취약계층 아동돌봄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아동의 야간보육과 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소로 한국YWCA는 제천, 파주, 하남, 논산, 안동, 사천, 광주를 포함해 모두 9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한다.

##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전국 14개 회원YWCA가 참가하는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11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청소년이해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YWCA 키다리학교 활동, 분석을 통한 운영 매뉴얼을 기획했다. 키다리 학교는 돌봄 가치, 공동체 협업을 배우는 기회가 줄어드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성과 시민참여 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고 있다.

## 지역별 대학·청년Y 실무 간담회

대학·청년Y 실무 간담회가 4부 지역별로 진행됐다. 동부지역은 11월 1일(화) 마산YWCA에서 7명, 북부지역은 11월 8일(목) 연합회에서 5명, 중부지역은 11월 11일(금) 청주YWCA에서 4명, 서부지역은 11월 21일(월) 광주YWCA에서 6명의 실무활동가가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 2016년 대학·청년Y 활동 공유와 평가, 2017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활동 제안, YWCA 중점운동과 회원YWCA 일상활동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 연합회 임원단, 세계YWCA 프로그램 국장 면담



연합회 임원단이 11월 15일(화) 한국을 방문한 세계YWCA 리타 무암보(Rita Muyambo) 프로그램 국장을 면담했다. YWCA운동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방한한 리타 국장은 세계YWCA 운동방향을 설명하고, 한국YWCA 활동상황

을 공유했다. 이날 면담에는 원영희 부회장, 최형선 서기, 차경애 직전회장, 장미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유성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리타 국장은 이보다 앞서 11월 14일(월) 대학·청년Y 임원을 만나 세계YWCA 청년활동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청년기자단 제5차 정기모임 '스브스뉴스' 특강**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YWCA 활동을 알리는 청년기자단 Y러너 제5차 정기모임이 11월 5일(토) 연합회에서 열렸다. 10월 활동나눔과 11~12월 콘텐츠를 기획하고, 권영인 SBS 기자가 '스브스 뉴스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는가'를 주제로 멘토링 특강을 했다. 청년기자단뿐 아니라 Y-틴과 대학·청년Y 회원들도 참석한 이번 강연은 SNS에 관심이 큰 청소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의순 나눔기금' 1억원 장학금 약정**



전국회원대회와 한일YWCA협의회 통역봉사를 마치고 귀갓길 교통사고로 투병하다 지난 10월 별세한 고의순 은학의집 운영위원 가족이 YWCA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고 위원 가족들은 고인이 YWCA 활동에 헌신한 뜻을 받들어 '고의순 나눔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으며, 별도로 매년 36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금은 소외계층과 어려운 가정 고등학교 여학생 3명의 장학금으로 쓰인다.

**증경회장모임, 군산YWCA 재건기금 전달**

전국증경회장모임이 군산직할지부에 군산YWCA 재건기금으로 60만원을 전달했다. 9월 27일(화)부터 28일(수)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6 YWCA 전국증경회장모임은 기증소품 판매 수익금을 군산YWCA 재건과 김활랑장학금 활성화에 각각 기부했다.

**기후변화와 여성 원탁회의**



성평등위원회(위원장 김은경)와 탈핵생명위원회(위원장 원영희)는 10월 25일(화) '기후변화와 여성 원탁회의'를 연합회 강당에서 열었다.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여성(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변화대응과 탈핵(이유진 녹색당 정책위원장), 기후변화와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대응(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최경숙 차일드세이프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동 제안 토론을 벌였다. 한영수·원영희 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실행위원,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촉구 기자회견**



YWCA, 차일드세이프,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시민·여성·사회단체들은 11월 8일(화) 오후 3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승인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리 5·6호기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을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인사	
· 사직 강수현 간사(탈핵생명위원회) 2016. 10. 31	
· 발령 김상은 간사(탈핵생명위원회) 2016. 11. 1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다문화가정 가을 나들이**



강릉YWCA 가족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어깨동무 함께하기' 프로그램으로 설악산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강릉YWCA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생활정착과 정보교류 등을 위해 올해로 3년째 '어깨동무 함께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나들이에는 10여 명의 다문화가정 여성이 참여했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동해시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 참가**



동해YWCA는 10월 22일(토) 동해시청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3회 동해시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했다. 동해시와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해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해시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YWCA는 시민, 사회복지기관들과 소통하며 YWCA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함께해서 행복한 서울YWCA 큰장날**

1960년대부터 매해 여는 큰장날을 10월 13일(목) 서울

YWCA회관과 연합회 주차장에서 열었다. 특별히 이번 장날에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선발대회와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벌여 '함께해서 행복한'이라는 슬로건 의미를 더했다. 큰장날 수익금은 여성·환경·청소년·해외봉사 등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서울YWCA 활동에 쓰인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10월 18일(화) 속초초등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속초 농협이 후원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식품첨가물 유해성에 대해 알렸다. 속초YWCA는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통해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했다

**인천YWCA 김다실 간사**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인천YWCA와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0월 29일(토)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소녀상 제막, 평화콘서트,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된 인천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6월 발족한 추진

위원회가 거리에서 모금한 시민성금 9천만 원으로 제작됐다.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말숙 인천YWCA 회장은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무시한 양국의 일방적 합의를 지켜만 볼 수 없던 시민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 춘천YWCA

육여진 간사

### 청소년 요리동아리 '초아' 국가유공자 봉사



춘천YWCA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 '초아'는 10월 22일(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오징어 볶음, 콩나물 무침 등 밑반찬을 전달하고 말벗도 되어주었다. 춘천시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초아'는 매달 요리로 뜻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요리 봉사동아리다. 중학생 때부터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왔다.

## 경기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제16회 고양YWCA 나눔행사

제16회 고양YWCA 나눔행사가 10월 21일(금) 강선공원에서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는 작은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

민들과 이사·위원·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풍성한 먹을거리와 후원업체 물품을 판매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축제가 되었다. 수익금은 '고양 여성의 쉼터' 입소자 난방비 지원과 '키다리학교' 취약계층 김장나눔 지원에 쓰인다.



## 광명YWCA

박문경 부장

### 나눔바자회 '민들레밥상'



광명YWCA는 나눔바자회 '민들레 밥상'을 10월 18일(화) 광명시 평생학습원 지하 광명시민의 부엌에서 진행했다. 광명YWCA 재정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지역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에게 생명사랑공동체 광명YWCA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 광명YWCA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 돌봄회원 아우회

남양주YWCA 돌봄회원 자조모임 '백합' 회원들이 10월 22일(토) 남이섬으로 아우회를 다녀왔다. 30여 명의 돌봄회원과 4명의 실무자들은 몸 게임, 보물찾기, 신발던지기, 2인 3각, 조별게임 등으로 친밀감을 높이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봄회원들은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YWCA 돌봄운동의 동력을 얻었다.



## 부천YWCA

이지원 간사

###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집담회



부천YWCA는 10월 7일(금)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선화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의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의미와 개정방향' 주제강연 뒤 부천지역 여성단체, 공무원, 시민이 성평등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천YWCA와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모두 5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계속 진행해왔다.

## 성남YWCA

이보경 주임

###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힐링여행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은 10월 15일(토) 남이섬으로 힐링여행을 다녀왔다. 살림돌봄, 산모돌봄, 아기돌봄 60여 명이 레크레이션과 야외활동을 하면서 평소 나누지 못한

이야기와 고충을 공유했다. 지난 5월 창립한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우수한 돌봄미를 양성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어떻게 양성평등하게 키울까' 성인지 교육



10월 14일(금), 21일(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지 강연을 열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양성평등하게 키울까'라는 주제로 이명신 더좋은교육 협동조합 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수원YWCA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청소년,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성인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휴먼플러스를 진행했다.

## 안산YWCA

문성은 간사

### 부곡중학교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10월 20일(목) 부곡중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가 우리 쌀을 후원하고 YWCA 회원들이 700여 개 주먹밥을 만들어 음료와 함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안산YWCA는 앞

으로도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운동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제21회 여성진로페스티벌 개최



안양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0월 14일(금) 안양역 롯데백화점 샵대광장에서 제21회 여성진로페스티벌 'The 행복'을 열었다. 취업지원관, 직종정보관, 홍보관으로 이뤄진 이번 진로페스티벌은 여성들에게 전문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구인 희망업체의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안양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등 여성전문인력양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의정부YWCA 정진아 팀장

### 취업 토크콘서트 '그녀가 돌아왔다'



의정부YWCA 새일센터에서 주관한 취업토크콘서트 '그녀가 돌아왔다'가 10월 7일(금) 의정부 롯데시네마 민락관에서 열렸다. 경기북부지역 경력단절 여성 300여 명이 참여해 힐링 프로그램과 이색콘텐츠 등을 체험했다. 특별 초청강연으로 배우 이혜근의 '이야기공감', 댄스동아리 크라티아의 초청공연, 3인3색 패널토크 등의 프로그램과 드라이플라워액자만

들기, 팔찌 만들기, 직업선호도 검사, 포토존 콘테스트 등 체험부스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 파주YWCA 서동희 간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2016년 3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이 10월 17일(월)부터 26일(수)까지 진행되었다. 신규·경력 과정을 마친 10명의 교육생은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기관에서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파주YWCA는 60세 미만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평택YWCA 정혜근 간사

### 원산지표시 계도활동



산모·살림 돌봄회원과 함께 하반기 원산지표시 계도활동을 11월 3일(목) 송북전통시장에서 펼쳤다. 시장·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원산지표시판을 배포했다. 평택YWCA의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계도활동으로 평택 전통시장 여러 곳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하고 있다.

## 중부

## 논산YWCA 권연정 간사

### 찾아가는 청소년 EM특강



논산YWCA는 10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신태여자중학교 1학년 1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EM특강 '수분가득 EM 퓌클렌저' 만들기를 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일부 치약의 유해성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면서 외모에 관심 많은 시기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화장품 사용을 권장하고 건강과 안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전YWCA 이다정 간사

### 창립70주년 생명·평화한마당



대전YWCA는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10월 15일(토) 대전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생명·평화한마당을 열었다. 시민, 회원 등 580여 명의 참석자들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생명·평화순례를 했다. 순례길에는 대전 YWCA 70년 역사와 활동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해 평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퍼즐 맞추기와 손도장 찍기, 플라워버킷 등 체험행사와 공연을 열고 도네이션 박스를 설치한 기부광장도 마련했다.

## 세종YWCA 김정현 간사

### 세종YWCA 후원의 밤

### CA 후원의 밤 희망콘서트 '빛으로'



희망콘서트 '빛의 세종'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목)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세종YWCA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YWCA운동을 알리고 지역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토크콘서트를, 가수 소리새가 공연무대를 펼쳤다.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교육감 등 지역인사와 세종YWCA 이사위원, 실무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차세대 장학금과 YWCA운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 제천 김미경 간사

### 제천여중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10월 13일(목) 제천여자중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열었다.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 농산물로 만든 겹밥을 나누어주며 아침식사와 안전한 먹을거리 중요성을 알렸다. 제천YWCA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해마다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천안YWCA 정상란 간사

### 이사·직원 정체성 강화교육

천안YWCA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이사·직원 교육을 10월 18일(화) 도고 교원연수원에서 진행했다. 김형 한국YWCA연합

회 전 부회장이 YWCA 활동가로서 자세와 역할을 강의했다. 이사·직원들은 YWCA 5대정책을 중심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청주YWCA 박보람 간사

### 직거래장터 한마당 '농부, 이야기를 담다'



10월 29일(토) 청주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직거래장터 한마당 '농부, 이야기를 담다'를 열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판매장터 '농부의 손수레',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 '못난이들의 반란', 청년농부 휴먼라이브러리 '농부의 식탁'으로 꾸며졌으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청주YWCA는 다양한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농민과 농업과 소비자 지역을 함께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충주YWCA 김세희 간사

### 충주시 청소년동아리 연합캠페인



충주YWCA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동아리 회원 80여 명은 10월 29일(토) 성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2016년 동아리 활동

을 알리고 2017년 회원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충주시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아리들의 연합활동으로 충주YWCA 동아리 6개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동아리 5개가 참여해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서부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살림' 주제로 광주여성문화난장



광주YWCA,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등 지역 여성단체들이 공동주관하고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한 '2016 광주여성문화난장'이 10월 15일(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살림'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의 사회, 환경 가치와 성평등 이슈를 다룬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성평등 개념에서 나아가 여성의 사회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남원YWCA 김미정 간사

### 남원성원고등학교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



남원YWCA는 10월 26일(수) 남원성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아침밥의 소중함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어머니 정성을 담은 김밥과 음료를 나누어주었다. 또한 북한어린이들의 어려운 실상을 알리면서 북한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목포YWCA 곽수현 부장

### '리멤버 416,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 직원연수



목포YWCA는 10월 29일(토) 진도와 해남에서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리멤버 416, 세월호 진실을 향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도 팽목항과 기억의 숲을 돌아보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YWCA의 사회 역할을 고민했다. 이어 초호감농원을 방문하여 김이남 대표 만남과 감따기 체험을 해보면서 우수지역농산물 판매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2명의 직원들은 연수를 통해 목포YWCA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서귀포지역 평화아카데미 수료



평화·문화·환경 등 전문가 특강을 통해 평화전략을 고민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서귀포지역 평화아카데미가 7개 강좌를 모두 마쳤다. 지난 5월 첫 강좌를 연 평화아카데미는 10월 26일(토)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미래사회와 메가트렌

드'를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은 평화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순천YWCA 김정민 부장

### 순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순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10월 15일(토) 순천시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종훈 순천시장·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종교·시민사회·여성계 인사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성금 7,400여만 원으로 제작된 '순천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서 51번째 설치되는 김서경·김운성 부부작가 작품이다. 순천YWCA를 포함한 15개 단체는 지난 3월 8일(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순천지역 여성연대'를 발족했다.

##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이사위원 성평등 교육



여수YWCA는 10월 4일(화) 회관 강당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이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혜경 광양YWCA 사무총장의 '성에 대한 개념 바로 알기' 강의에 이어 대화시간을 갖고 가정, 단체, 지역에서 양성평등한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토론했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착한(着韓)통일을 위한 통일영화제



전주YWCA 전북하나센터는 '2016 착한(着韓)통일을 위한 통일영화제'를 10월 26일(수)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고 '함께라서 행복해'(애니메이션), '태양아래'(다큐멘터리), '보고싶다'(옴니버스) 3편을 공개했다. 애니메이션을 관람한 어린이집 원아들은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참여해 후원금을 모았고, 참석자들은 통일을 위한 희망 메시지로 통일을 염원했다. 통일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남북한 제도, 이념 차이를 이해하면서 주민통합기회로 갖고자 마련되었다.

## 제주YWCA 이유리 간사

###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제주YWCA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10월 20일(목)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와 청년 등 구직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 청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74개 기업의 채용면접에 96명이 1차 합격하는 성과를 얻었다.

## 동부

### 거제YWCA 홍윤정 팀장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거제YWCA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10월 6일(목)부터 11월 10(목)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남성과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시간, 부부관계 방향을 결정짓는 일상 대화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등을 다루었다. 11월 12일(토)에는 '가족과 소통 잘하는 방법 배우기' 캠프도 열었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제17회 성인동화 구연대회



10월 26일(수) 김해YWCA 강당에서 제17회 성인동화 구연대회를 열었다. 김해YWCA는 성인들에게 동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마다 구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과 배명자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대구YWCA 배민희 간사

### 대구YWCA 큰장날 시월애

대구YWCA 큰장날 시월애가 10월 20일(목) YWCA회관에서

열렸다. '이웃사랑, 지역사랑, 생명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큰장날은 친환경제품과 직거래상품, 각 위원회에서 준비한 애장품으로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장을 제공했다. 특히 현장교육으로 '로컬푸드' 의미와 제철식품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뜻을 더했고, 생명사랑공동체로서 YWCA 운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부산YWCA 윤영인 간사

### 이사위원 에너지자립운동 연수



부산YWCA 이사위원 연수가 10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에너지자립마을 신대방 현대아파트, 노원에코센터,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를 견학하며 탈핵운동을 위한 정보를 얻고 에너지 자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YWCA 역할을 고민했다.

### 마산YWCA 박주옥 부장

### 마산합포고등학교 '애들이 밥먹자'

10월 5일(수) 마산합포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780여 명에게 백설기를 나누어주고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산YWCA는 우리 쌀의 우수성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해마다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펼

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차혜영 회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환경스토리텔링, 리사이클 박람회



사천YWCA는 경상남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스토리텔링' 일환으로 10월 15일(토)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리사이클 박람회를 열었다. 9월부터 사천시민과 회원들에게 생활용품, 의류, 도서 등을 기증받아 박람회에서 판매했다. 사천YWCA는 수익금 일부로 쌀을 구입, 사천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 양산YWCA 박경하 간사

### '우리 아빠는 셰프' 행복한 양성평등 가정 만들기

행복한 양성평등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인 양산YWCA는 10월 15일(토)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다. 가정부터 양성평등 문화를 실천하고자 여성책임으로 인식하는 요리를 아빠가 직접 해보는 이번 대회에는 12명의 아빠가 참가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아빠 요리경연대회는 가정 양성평등 실천으로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견학, 한약 재료로 만들기 등 몸과 마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주 YWCA는 진주시 보조금 사업인 '어르신들의 즐거운 인생 몸 튼튼 마음 튼튼'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창원YWCA 정미영 간사

탈핵행진 차량시위



창원YWCA는 10월 13일(목) 탈핵경남행동 소속단체들과 함께 탈핵행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막고, 노후원전 폐쇄와 안전강화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탈핵 문구를 부착한 14대 차량이 창원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창원시청-경상남도청사-경상남도의회를 거쳐 진해구청-진해루-장북터널을 달려 탈핵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포항YWCA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10월 22일(토) 포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했다. 장애인, 청소년, 봉사자 55명이 서로 짝을 이루어 한지공예와 천연염색 체험을 했다. 이어 덕동문화마을 탐방, 모듬북 난타체험 등을 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태풍 '차바' 피해복구 환경정화 활동



울산YWCA는 10월 10일(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태화강대공원에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사위원, 활동가 등 20여 명은 강변 청소와 토사물 제거 등을 했다.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한 울산YWCA는 지역사회 살림운동을 적극 펼쳐갈 예정이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어르신 한방 문화체험 나들이



'어르신들의 즐거운 인생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40여 명이 10월 28일(금) 대구 한방 문화체험 나들이를

11월 · Nov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b>1</b> 신고리 5·6호기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거제Y 셋바람프리마켓 의정부Y 찾아가는 썬크머니 창원Y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3일)	<b>2</b>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 워크숍(~4일) 동해Y 회원대회	<b>3</b>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성남Y 큰장날 충주Y 바자회 포항Y 하반기 취업&창업박람회	<b>4</b> 진주Y 일일차집	<b>5</b> 전국YWCA 어린이집 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광주Y 창립기념일 (1922.11.5) 고양Y 꿈찾기비즈니스쿨 수료식 남양주Y 새일센터 취업캠프 목포Y Y-틴 확대임원협의회 울산Y 청소년 건전문화 축제 및 탈핵 캠페인
<b>6</b> 순천Y 이사연수회(~7일)	<b>7</b> 광주Y 2017년 회원 증모운동발대식 목포Y 신안 도초중 학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교실 진해Y 이사·위원·실무자 교육	<b>8</b>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 대전Y YWCA-YMCA 공동예배 전주Y 정책협의회	<b>9</b> NCS 최종보고회 성남Y 성평등 도시 간담회 속초Y 실무자연수 포항Y YWCA-YMCA 공동예배	<b>10</b> 한국YWCA 정책교육-중서부지역 안산Y 여성특화채용박람회	<b>11</b> 광주Y 창립기념일 대구Y 위원·이사연수 (~12일) 안산Y 회원한마음대회 제주Y 회원증모발대식	<b>12</b> 고양Y 카다리학교 취약계층 김장김치나누기 마산Y 창원시마산청소년어울림마당 양산Y 자선 연극공연 여수Y Y-틴, 대학Y와 함께하는 회원의 날 진주Y 청소년 멘토스쿨
<b>13</b> 청주Y 청주청년Y 총회	<b>14</b> YWCA-YMCA 연합예배 화천YWCA 중경실무자 해외연수(~18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행진 강릉Y 하반기 이사·위원 워크숍(~15일) 수원Y 인권프로그램 작품 전시회(~25일)	<b>15</b> 세계YWCA 인사와 연합회 임원단 모임 남양주Y '잘가라 핵발전소' 출범식 및 캠페인 사천Y 탈핵캠페인	<b>16</b> 강릉Y 성평등 교육 광주Y 두레산악회 30주년 기념행사 대구Y YWCA-YMCA 공동예배 안양Y YWCA-YMCA 공동예배	<b>17</b> 강릉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합동 캠페인 남양주Y YWCA-YMCA 공동예배 대전Y 신앙강좌 제천Y 꿈나눔 바자회	<b>18</b> 2016 다래교실 비전 페스티벌 (~19일) 광주Y 2016년 제2차 이사·위원연수 울산Y YWCA-YMCA 공동예배	<b>19</b> 마산Y 청소년 틴틴페스티벌 여수Y 합창단 정기연주회 충주Y 충북찬양제 참석
<b>20</b> 논산Y 창립기념일 (2001.11.20)	<b>21</b>	<b>22</b> YWCA복지기관장 연수(~23일) 통영Y 창립기념일 (1990.11.22) 남원Y 2016 직원연수 수원Y YWCA-YMCA 공동예배 목포Y YWCA-YMCA 공동예배 순천Y YWCA-YMCA 공동예배 양산Y 10주년 기념식 전주Y 불의 날 캠페인 춘천Y YWCA-YMCA 공동예배	<b>23</b> 동해Y 직원 연수 (~26일) 의정부Y YWCA-YMCA 공동예배 대전Y 비전워크숍 청주Y 중점운동프로그램협의회 춘천Y 탈핵학교(공동주최)	<b>24</b>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25일) 목포Y 신안 지명중학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교실 부천Y 창립20주년 기념행사	<b>25</b> 2016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충주Y 고3 팔과 함께 하는 모녀 힐링캠프(~26일)	<b>26</b>
<b>27</b>	<b>28</b> 부천Y 창립기념일 (1996.11.28) 사천Y 제18회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	<b>29</b> 여성폭력시절장 워크숍 창원Y 회원의 날 및 자원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광명Y 여성폭력예방주간 캠페인	<b>30</b> 순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양산Y 창립기념일 (2006.11.30.) 부천Y 순회현신예배-새부천교회 서울Y 돌봄50주년포럼 제천Y EM환경교육			

12월 · Dec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b>1</b> 동해Y 새일여성 페스티벌 청주Y 모금콘서트 천안Y 후원의 밤 '사랑나눔음악회'	<b>2</b>	<b>3</b> 고양Y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 광명Y 광명시 페스티벌 오프닝 공연 '빨간모자'
<b>4</b> 속초Y 창립기념일 (1986.12.4)	<b>5</b> 부천Y YWCA -YMCA 공동예배 순천Y 프로그램 협의회 서귀포Y 진로아카데미	<b>6</b> 전주Y 회원한마당 창원Y 기금마련 위한 김장바자회	<b>7</b> 남양주Y 경기지역위원회 및 경기지사·부지사 간담회	<b>8</b> 연합회 성탄예배 수원Y 성탄예배 안양Y 돌봄 송년의 밤 울산Y 성탄예배와 이사직원 연수	<b>9</b> 서울Y 창립기념일 (1922.12.9) 창립기념예배 하남Y 창립기념일 (1991.12.9) 고양Y 가사자치회 성탄모임	<b>10</b> 동부지역 Y-틴 Day 울산Y 제17기 환경지기단 수료식 원주Y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b>11</b>	<b>12</b> 창원Y 연말불우이웃돕기 나눔(~23일) 고양Y 성탄콘서트	<b>13</b> 마산Y 이사·직원의 밤 천안Y 성탄예배	<b>14</b> 대전Y 성탄예배 의정부Y 성탄예배	<b>15</b> 광주Y 성탄축하예배 및 역대Y위원 홈커밍데이 부천Y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송년회 춘천Y 송년의 밤 (돌봄과살림) 대전Y 돌봄과살림 성탄예배	<b>16</b> 강릉Y 사랑의 쎬!쎬!쎬! 서귀포Y 정책협의회	<b>17</b> 안양Y Y-틴 회원대회
<b>18</b>	<b>19</b>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연구모임 남원Y 창립기념일 (1991.12.19) 성탄예배 춘천Y 성탄예배	<b>20</b> 남양주Y 회원성탄예배 충주Y 창립기념일 (1985.12.20) 안양Y 성탄예배 & 홈커밍데이 전주Y 불의날 캠페인 부산Y 회원 성탄제	<b>21</b> 강릉Y 성탄예배	<b>22</b> 속초Y 성탄예배	<b>23</b> 제천Y 창립기념일 (1986.12.23) 창립기념일 행사 및 성탄예배 대전Y 방과후아카데미 졸업잔치 원주Y 불우이웃에게 EM비누 전달	<b>24</b>
<b>25</b>	<b>26</b> 수원Y 실무자 송년회	<b>27</b> 1기 청년기자단 수료식 탈핵 불의날 캠페인	<b>28</b>	<b>29</b>	<b>30</b> 속초Y 종무식 안양Y 종무예배	<b>31</b>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환자예티켓도 '꼭' 지켜주세요

간호인력은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언제나 애써주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나 일부 환자들의 빛나간 의식과 예티켓 실종은 다른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내 돈 내고 서비스도 맘대로 못받냐?  
시키는대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5가지를 꼭 주의해주세요~!

1. 개인적인 심부름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내 양말 좀 사다줘!

2.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주세요

나도 저렇게 도와줘!

3. 거친 언행은 자제해주세요

아가씨!  
어머나!

4.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그냥 눌러봤어요...  
무슨 일이죠?

5. 정해진 방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왜 이제야 오는거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